순천만 철새 도래지 주변 가금농장 습지로 복원된다

환경부, 농장 3개소·농경지 습지개선지역 지정

순천시는 순천만 철새도래지 주변에 위치한 가금농장 3개소를 포함한 인근 농경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습지개선지역으로 지난 4일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습지개선지역은 기존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인위적인 관리를 통해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순천시는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기존에 지정된 순천만 인접 동천하구 (2015년, 5.394㎢,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주변 교량동과 별량면 일원 0.263㎢를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번 동천하구 습지개선지역 지정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순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 주민이 주도적으로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농장주와 농민들이 가금농장 철거 의사를 순천시에 밝혔다는 점이다.

앞으로 시는 습지의 훼손을 막고 상시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이번에 지정된 동천하구 습지개선지역을 단계적으로 습지로 복원할 계획이다.

순천만관리센터 관계자는 "국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가금농장과 시설하우스가 늘어나면서 새들의 먹이터가 사라지고 AI 전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의 경계관리와 자연 생태 보전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고 말했다.

시는 매년 반복되는 고병원성 AI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년 10월 1일부터 소독매트, 자외선소독기 설치, 현장예찰 강화, 탐방로 소독, 철새도래지 진입차단과 안내간판 설치 등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11월부터 주민들로 구성된 철새지킴이는 농경지 주변에 갈대울타리를 설치하고 주요 철새도래지 안으로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2018 한국-중국-일본-호주간 철새양자회의(일본 오키나와, 11.26~11.30)에 철새와 그 서식지 보전 우수 지자체로 초청되었으며, 전체회의에서 '순천의 철새 서식지 보전과 AI 관리 대책'을 발표하여 국내외 조류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순천=김승호 기자

구례군-한국야생화사회적협동조합 업무협약

한국명인학교 창립과 명장·명인 인증 수여식

구례군과 한국야생화사회적협동조합간 업무협약과 한국명인학교 창립과 명장명인 수여식이 지난 7일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1부 행사로 구례군과 한국야생화협동조합간 업무협약이 이뤄졌다. 양 기관은 명장명인 양성과 아크릴 식물표본제작 등 야생화 예술산업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조를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세계평화사랑연맹과 업무협약도 가졌는데 명인학교 운영과 식물표본제작 세계화 등을 같이 협조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제2부 행사에서는 명장 4명과 명인 4명에 대한 인증서 수여를 하였다. 대한민국 최고권위의 명장명인 8명이 지정되어 자연생태예술이 더욱 융성하게 발전하고, 문화예술세계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협동조합 부설로 설립된 한국명인학교는 초대교장으로 주순엽 명장을 선임하고, 식물표본 코디네이터, 꽃차, 야생화 등 10명의 교수진을 구성하여 2019년 3월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구례=박진호 기자

순천시 신청사 건립 시민 공청회 개최

오늘 오후 건립부지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 나서

순천시가 11일 화요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순천시 신청사 건립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순천시가 내년 1월 초 신청사 건립부지 최종 확정 발표를 앞두고 시민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개최한 1차 공청회 이후 두 번째이다.

참석대상은 시민과 각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사 건립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청사 건립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도시계획·교통·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부지별 특성 설명, 참석자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기존 공청회의 형식을 깨고 전문가 발제 시간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황경석 기자

보성군, 2018 식품안전관리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영예

보성군은 2018년도 식품·공중위생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가 올 한 해 동안 22개 시·군에서 추진한 위생관리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실시했다.

보성군은 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 결과 2016년부터 3년 연속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식품 위해사고 사전 차단을 위해 유통식품의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 한 것과 관광객이 많이 방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음식점, 횟집, 집단 급식소 등 위생업소에 대한 계절별, 원인식품별 위생지도단속 등의 활동이 식품위생관리 분야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군 관계자는 "한 해 동안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식품위생 관리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맑고 깨끗한 녹차수도 보성으로 기억되도록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양 중마도서관 자료실 야간 연장 개방 호응 높아

광양시립중마도서관은 저녁 10시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시간 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공모 사업으로, 2016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중마도서관은 개관시간 연장을 오후 6시에서 저녁 10시까지로 연장해 평일 낮 시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들과 주민들에게 도서 대출과 반납, 도서회원증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 야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더영헌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유명 그림책 작가 오치근 강사를 초청해 '느끼는 대로, 감성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갖고 수강생들이 직접 참여한 작품들을 제작?전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바탕으로 이용통계 분석 결과 올해 도서관 야간 이용자수가 전년대비 4,700 여명이 증가한 59%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 11월 실시한 개관시간 연장사업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93.5%가 사업 운영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성재순 도서관사업소장은 "최근 IT기술 등 정보화 기기 발달로 책 한권 읽기가 바쁜 시대에 시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독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마도서관 야간 이용에 대한 사항은 중마도서관(☎797-24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광양시, 2019년 교통관련 국도비 예산 125억 원 확보

총 11개 사업,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선진 교통 서비스 기대

광양시는 내년도 주차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도비 12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국·도비 사업으로는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을 비롯한 총 11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비로 52억 원, 광양읍 5일시장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 30억 원, 벽지·오지마을 100원 택시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확보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 사업비로 6억 원, 어린이 통학로 설치사업 4억6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2백만 원, 광양읍 교통안전 신호기 설치 사업에 2억1천만 원 등 총 16억8천4백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일반재정 지원금 20억 원,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비 9천만 원 등 총 20억9천만 원을 확보했다.

정구영 교통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선진 교통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